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84
OCT 20 2023

발간년월 2023년 10월 20일(통권 제28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 종 덕 **총괄** 김 민 수 **감수** 김 엄 지 **담당** 유 지 원·정 다 현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6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구역에서 북한 공장 운영 - 러 페벡 항만, 차세대 부유식 발전 장치 프로젝트 승인 - 러시아 철도청, 각 지부 회의 개최 동향
	중·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남북 국제 회랑 연결에 주목
	북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해 중국으로의 석유 운송량 증가 - 러 북부 운송법, 화물 운송 시간 25% 및 가격 20% 절감 예상
주요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2023년 8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 2020년~2023년 8월 러시아 역내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량



주요 동향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구역에서 북한 공장 운영

그림 1.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구역에 위치한 공장 내부의 북한 선전 슬로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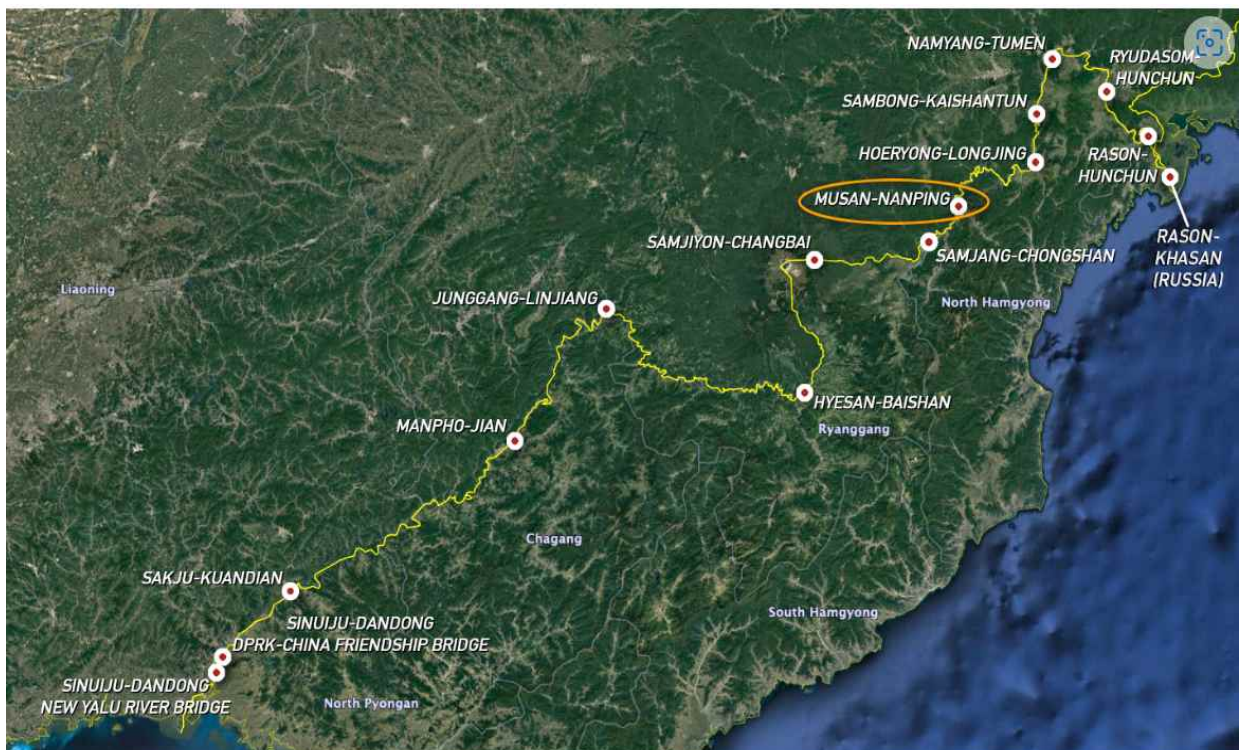
자료: NK PRO 2023년 10월 4일 자

■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중국에 북한 공장 가동

- NK PRO에 따르면 북·중 접경인 함경북도 무산 건너편 중국 경제구역에 북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북제재(UNSCR 2397, 2375호) 위반이라고 단독 보도하였음
- 위성사진 관찰 결과, 최근 몇 달 동안, 이 지역에 급속한 건설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화물 트럭이 양측의 국경 다리를 활발히 운행하고 있으며, 차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무역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위 사진에 따르면, 허룽국경경제협력구(Helong Frontier Economic and Cooperation Zone)에 의류용 마스크 공장 벽면, 북한의 선전 구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진은 2020년 길림성 부총재와 지방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시찰하는 것을 찍은 사진이며,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만세라고 적혀 있음
- 이 공장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으며 이 공장 외에도 다른 의류회사에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함

-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2023년까지 북·중 간 무역은 폐쇄되었으나 최근 재개된 징후가 여럿 있음. 연합뉴스도 난평~무산 국경이 개방되어 중국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음. 지린성 훈춘~나진에 이어 북·중 간 도로 운행 재개의 두 번째 사례임
- 난평(南平)의 허룽 국경 경제협력구는 2016년 건설이 시작되어 이듬해까지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대북제재 이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대체로 북·중 접경지역은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성장이 둔화하였으나, 2020년에 건설이 강화되었고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북·중 접경지역인 무산-난핑 간 경제무역지구의 위치(주황색)



자료: NK PRO 2023년 10월 4일 자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 a) <https://www.nknews.org/pro/sanctions-busting-north-korean-factory-operating-in-china-evidence-suggests/>;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069700097>;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069700097> (2023.10. 9. 검색)

러 페벡 항만, 차세대 부유식 발전 장치 프로젝트 승인

그림. 페벡 항구에 배치 예정인 부유식 발전 장치(MFPU)



자료: <https://en.portnews.ru/news/354854/>

■ 페벡 항구에 차세대 부유식 발전 장치 배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승인됨

- 러시아 연방 건설주택공공사업부 산하 국가평가총국(GlavgosExpertiza, GGE)은 차세대 부유식 발전 장치(MFPU) 배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 MFPU는 북극항로(NSR)의 페벡 항구(Port of Pevek)인 나글레이닌 곶(Cape Nagleynin)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 터미널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임
- 이 해양 터미널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러시아 국영원전기업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인 연방 정부 단일기업 수로공사(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Hydrographic Enterprise)이며, 앞서 로사톰은 바임스키(Baimsky) 광석 지대에 전력을 공급할 차세대 MFPU 4대를 건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업그레이드된 FPU는 러시아 극북 및 극동지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륙 수력 공학 및 기술적 구조물을 포함한 기반 시설의 일부로서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 설계되어 내륙의 전력 그리드(Grid)에 최대 106M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GGE는 지난달 바임스키 광산 및 가공 공장의 제품 선적을 위해 추코트카 자치구 지역 (Chukotka Autonomous Okrug)의 페벡 항구에 해양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새로운 해양 터미널의 본격적인 상업 운영 개시 시점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를 통한 연중 화물 운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서자영 자료입력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weekly_kmi@kmi.re.kr)

러시아 철도청, 각 지부 회의 개최 동향

그림.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컨테이너



자료: <https://www.rzd-partner.ru>

■ 러시아 철도청 극동 지부, 2023년 극동지역 화물 운송량 6% 증가 예상^{b)}

- 예브게니 베이데(Evgeny Veide) 러시아 철도청 극동지역 지부 회장에 따르면, 2023년에 극동 지역 철도(DVZD)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DVZD는 2023년 1월~9월 간의 화물 운송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전체 화물 운송량은 5,500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화물 운송량이 7.2% 증가하여 7,000만 톤 이상을 기록했으며, 그중 석탄 운송량은 총 화물 운송량의 45.7%를 차지하며 7.2% 증가했음

■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 철도청의 투자 규모 또한 1조 1,900억 루블로 증가^{a)}

-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y Belousov) 러시아 제1부총리 겸 러시아 철도청 사장 주재로 진행된 러시아 철도 이사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에 대한 러시아철도의 투자 프로그램 규모가 1

조 1,000억 루블에서 1조 1,900억 루블로, 약 900억 루블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 또한 이사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의 비핵심 자산 등록에 대한 추가를 승인하고, 공공기관을 위해 여러 분야의 비핵심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승인함
- 2019~2025년 러시아 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조치 프로그램도 고도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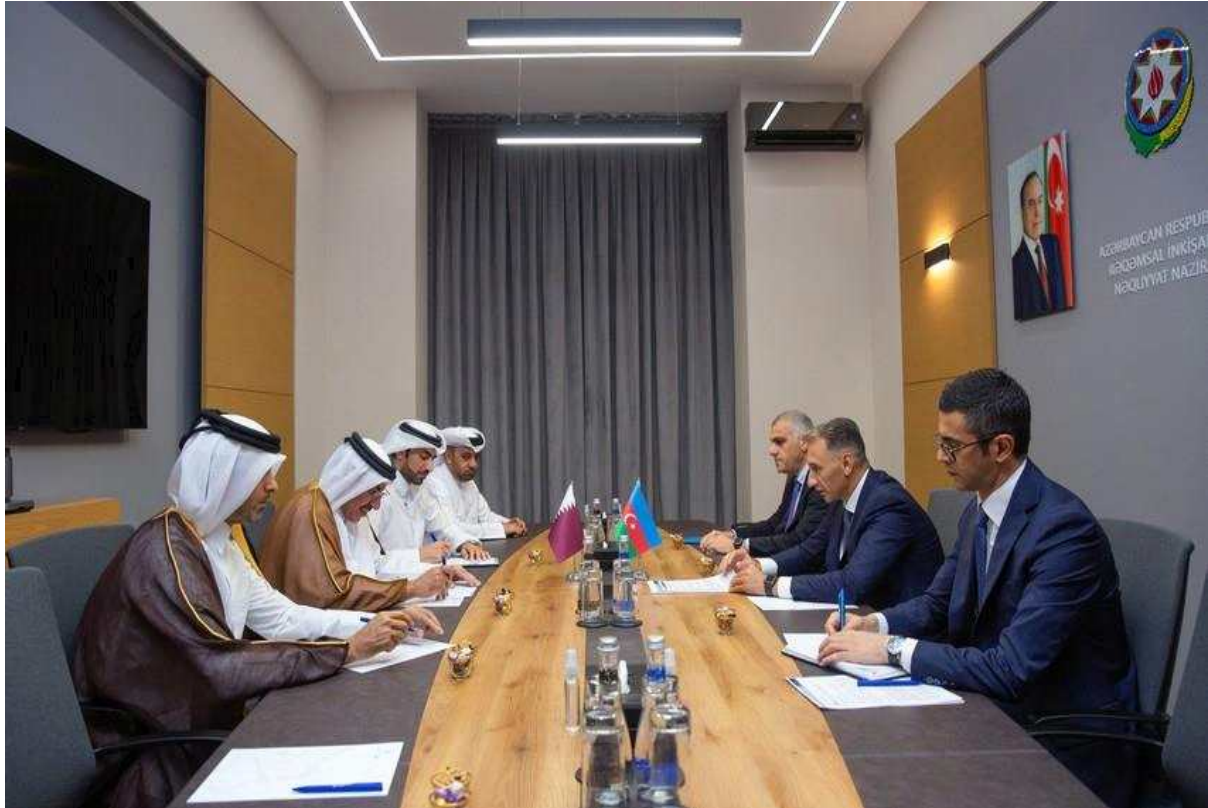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아 러시아 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anastasia.konst@mail.ru)

참고자료

- a) <https://morvesti.ru/news/1678/105489/>(2023.10.16. 검색)
- b) <https://morvesti.ru/news/1678/105506/>(2023.10.17. 검색)

카타르, 남북 국제 회랑 연결에 주목

그림. 아제르바이잔-카타르 실무회의



자료: https://moscow-baku.ru/news/economy/azerbaydzhan_i_katar_obsudili_sotrudnichestvo_v_ramkakh_koridora_sever_yug/

■ 이란은 카타르의 남북 국제회랑 참여를 환영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a)}

- 메흐다드 바즈르파쉬(Mehrdad Bazrpash)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은 10월 15일, 자심 빈 사이프 빈 아메드 알 술라이티(Jasim bin Saif bin Ahmed Al Sulaiti) 카타르 교통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 양측은 전화 통화 중 교통 연결 이슈 논의를 위해 테헤란에서 양국 장관급 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합의하였음
- 아울러 두 장관 모두 대화 중 양국 무역경제 관계 및 교통 연결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방안에 공감하였음

■ 알 술라이티 카타르 교통부 장관은 이미 9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바 있음^{b)}

- 레샤드 나비예프(Rəşad Nəbiyev) 아제르바이잔 디지털개발교통부 장관은 알 술라이티 카타르 교통부 장관이 바쿠를 방문하여, 양국 항공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논의하였다고 개인 SNS에 공개한 바 있음
- 남북국제회랑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며 수에즈 운하를 위시한 현행 해운 루트의 운송 소요 시간을 2~3배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지역 또한 이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음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denizxeber.az/2023/10/16/iran-q%C9%99t%C9%99rin-simal-c%C9%99nub-d%C9%99hli-zin%C9%99-qosulmasini-d%C9%99st%C9%99kl%C9%99yib/>(2023.10.17. 검색)
- b) https://moscow-baku.ru/news/economy/azerbaydzhan_i_katar_obsudili_sotrudnichestvo_v_ramkakh_koridora_sever_yug/(2023.10.17. 검색)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해 중국으로의 석유 운송량 증가

그림.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종관의 백악관 브리핑 모습



자료: <https://www.c-span.org/video/?530891-1/white-house-daily-briefing>

■ 미국은 북극항로를 통한 중국으로의 러시아 석유 수출 증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

-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 간 석유 수출 동향을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밝힘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엄중한 제재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 2023년 북극항로를 통한 중국으로의 석유 수송은 12차례

- 러시아 해안을 따라 베링해협에서 바렌츠해까지 이어지는 북극항로를 따라 올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12차례의 수송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 노드 대학교(Nord University)의 파이 노스 로지스틱스(High North Logistics)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한차례 진행된 시범 운항을 제외하고는 지난 몇 년간 북극에서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은 없었다고 밝혔음
-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제한되고, 중국이 이를 구매하고자

하므로, 러시아는 북극의 문을 중국으로 확장하고 있음.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은 올해 23% 증가하여 하루에 40만 배럴로 증가하였음

- 존 커비는 중국 정부에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서방 동맹국들이 부과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제한을 고수하라고 촉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80달러 안팎에 팔리고 있어 이번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가격 상한선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음

■ 북극항로를 통한 수송은 러시아로서는 현명한 결정이나, 환경 오염 가능성 제기

-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약 30% 빠르며,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양이 감소하고 있어 항행이 더 쉬워졌음
- 그러나 러시아가 북극에서 석유 운송을 하기 시작한다면, 환경 오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러시아는 에너지 프로젝트와 북극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제공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

- 중국은 2018년 '近 북극' 국가 선언으로 북극 역할을 확장하며, 해상루트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있음
- 중국은 북극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러시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존 커비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동맹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그들의 북극 협력은 대부분 경제적, 과학적이었다고 주장하였음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 a) [https://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russia-is-shipping-more-oil-through-the-arctic-route-to-chinese-ports/#:~:text=,Strait%20from%20the%20Barents%20Sea\(2023.10.10.검색\)](https://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russia-is-shipping-more-oil-through-the-arctic-route-to-chinese-ports/#:~:text=,Strait%20from%20the%20Barents%20Sea(2023.10.10.검색))

러 북부 운송법, 화물 운송 시간 25% 및 가격 20% 절감 예상

그림 1. 10월 11일 연방 의회에서 보고를 진행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자료: <https://en.portnews.ru/news/354819/>

■ 북부 운송법 시행 시 운송 시간 25% 단축, 가격 최대 20%까지 절감 가능^{a)b)}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Far East and Arctic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 FEFD) 특명전권대사는 2023년 10월 11일 연방 의회에서 북부 운송법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였음
- 유리 트루트네프는 채택된 북부 운송법은 이르면 2024년 초 극동 및 극북 지역에 중요 물품, 건축 자재 등의 적시 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동시에 운송 시간은 25% 단축되고, 가격은 최대 20%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올여름 국가두마(State Duma)가 북부 운송 프로그램을 위한 법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초안을 2차 및 3차 독회 본회의에서 즉시 채택한 바 있음
- 아울러 2023년 8월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법 ‘북부 운송에 관한 법률(On Northern Delivery)’은 극북 지역 및 이에 준하는 운송 기간이 제한된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로의 물품 운송, 특정 유형 물품에 대한 가격 규제, 거래가 인상, 특성 서비스에 대한 관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 북부 운송 지역에는 300만 명이 거주하는 러시아 25개 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들은 매년 북부 운송의 도움으로 약 340만 톤의 기본 물품을 공급받고 있음

그림 2. 러시아 추코트카 자치구에 위치한 항구



자료: <https://marintek-dv.ru/service/dostavka-gruzov-na-chukotku/?yclid=115846459529625599>

■ FESCO, 올해 북부 운송 프로그램으로 83,000톤 이상의 화물 운송 예정^{c)d}

- FESCO는 2023년 북부 운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 추코트카 자치구 지역 (Chukotka Autonomous Okrug)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기후,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항해 기간이 제한적인 북부 지역에 소비재를 공급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항해 기간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코트카 항구로의 항해가 없는 기간 동안의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FESCO는 Anadyr Direct Line(FAD)과 FESCO Arctic Line(FAL) 두 가지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 Anadyr Direct Line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상업무역항에서 출발하여 에그베키노트(Egvekinot)와 아나디르(Anadyr)로 향하는 노선임
 - 올해 마지막 운행을 10월 13일에 시작하였으며, 해당 선박은 컨테이너 387TEU, 식품, 건축자재, 각종 장비 등을 포함한 140톤의 일반 화물을 적재하고 있음.
 - 선박은 10월 20일 추코트카에 도착할 예정이며, 블라디보스토크로 10월 말~11월 초에 출발하여 돌아올 예정임
- FAL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Nakhodka)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거쳐 페베크 (Pevek) 항구까지 운행되며, 올해 마지막 운행은 10월 말에 이뤄질 예정임

- 이에 따라 FESCO는 2023년 동안 총 3,000TEU 이상의 컨테이너와 80,000톤 이상의 일 반 화물을 추코트카 자치구에 왕복 운송하게 될 예정임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서자영 자료입력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weekly_kmi@kmi.re.kr)

참고자료

- a) <https://en.portnews.ru/news/354819/>(2023.10.19. 검색)
- b) <https://morvesti.ru/news/1679/105433/>(2023.10.19. 검색)
- c) <https://morvesti.ru/news/1679/105463/>(2023.10.19. 검색)
- d) <https://marintek-dv.ru/service/dostavka-gruzov-na-chukotku/?yclid=115846459529625599>
(2023.10.19. 검색)



주요 통계



표. 2023년 1~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121.3	5.8%	59.7	9.1%	181	6.9%
북극해	23.7	10.9%	49.8	3.7%	73.5	0.6%
발트해	85.7	22.7%	102.9	7.9%	188.6	3.6%
아조프-흑해	110.2	29.3%	116.3	10.1%	226.5	18.7%
카스피해	3.5	1.7%	2.2	2.2%	5.7	34.3%
합계	344.4	17.3%	330.9	1.5%	675.3	9%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 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9월 기준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54701/>(2023.10.12. 검색)

표. 2021년~2023년 8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송량	2021년	597,929.9	606,097.4	656,833.9	621,022.6	649,285.2	684,041.4	766,853.6	766,618.8	763,058.0	724,195.1	657,206.1	649,380.5
	2022년	637,729.1	644,746.7	699,248.2	657,670.5	687,810.1	729,405.6	821,942.2	823,484.1	804,755.7	770,879.1 ³⁾	700,851.9 ³⁾	685,852.9 ³⁾
	전년 대비 증감률(%)	106.7	106.4	106.5	105.9	105.9	106.6	107.2	107.4	105.5	98.6	99.3	97.2
	전월 대비 증감률(%)	98.2	101.1	108.5	94.1	104.6	106.0	112.7	100.2	97.7	99.4	96.7	100.2
	2023년 ³⁾	650,586.7	650,403.2	703,043.4	667,151.6	693,926.7	749,277.0	814,014.9	870,054.1				
	전년 대비 증감률(%)	102.0	100.9	100.5	101.4	100.9	102.7	99.0	105.7				
	전월 대비 증감률(%)	83.8	100.0	108.1	94.9	104.0	108.0	108.6	106.9				
상업화물 운송량	2021년	334,396.4	333,830.2	364,920.0	335,977.4	348,964.9	348,310.6	365,118.8	365,535.0	363,727.3	351,155.5	338,860.7	358,331.5
	2022년	370,169.6	368,987.1	404,741.6	365,656.3	379,445.8	378,688.2	399,838.0	399,709.9	388,814.8	394,962.2 ³⁾	381,903.1 ³⁾	389,605.5 ³⁾
	전년 대비 증감률(%)	110.7	110.5	110.9	108.8	108.7	108.7	109.5	109.3	106.9	98.2	99.2	98.1
	전월 대비 증감률(%)	103.3	99.7	109.7	90.3	103.8	99.8	105.6	100.0	97.3	103.0	97.5	101.3
	2023년 ³⁾	401,117.9	406,879.2	420,083.9	395,376.6	398,026.8	391,200.8	399,560.3	406,456.5				
	전년 대비 증감률(%)	108.4	110.3	103.8	108.1	104.9	103.3	99.9	101.7				
	전월 대비 증감률(%)	93.8	101.4	103.2	94.1	100.7	98.3	102.1	101.7				

파이프라인 수송량을 제외한 상업화물 운송량	2021년	229,377.7	237,862.8	264,040.8	244,622.0	256,921.2	259,487.7	276,333.4	276,032.7	273,280.7	255,601.8	242,134.3	252,080.7
	2022년	265,871.2	275,226.3	303,523.6	279,056.3	292,913.2	296,336.3	318,749.2	318,840.5	310,561.4	309,578.7 ³⁾	290,951.6 ³⁾	288,107.1 ³⁾
	전년 대비 증감률(%)	115.9	115.7	115.0	114.1	114.0	114.2	115.3	115.5	113.6	101.5	101.2	99.3
	전월 대비 증감률(%)	105.5	103.5	110.3	91.9	105.0	101.2	107.6	100.0	97.4	101.1	94.5	97.5
	2023년 ³⁾	298,953.9	316,585.3	326,800.3	309,828.4	315,909.1	313,249.7	319,891.5	323,218.8				
	전년 대비 증감률(%)	112.4	115.0	107.7	111.0	107.9	105.7	100.4	101.4				
	전월 대비 증감률(%)	90.9	105.9	103.2	94.8	102.0	99.2	102.1	101.0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10.12.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10.12. 검색))

표. 2020년~2023년 8월 러시아 역내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운송 수단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철도 (적재 화물 기준)		2020	100,295.7	99,493.2	107,099.1	100,912.3	100,586.3	97,163.7	103,805.9	108,131.7	105,293.4	109,920.7	104,818.2	107,106.7
		2021	101,227.4	96,752.4	109,442.8	107,848.9	110,947.6	107,092.0	108,122.2	109,128.3	106,511.6	110,406.0	108,086.0	108,528.4
		2022	104,219.9	97,206.1	106,793.9	102,497.8	104,740.0	100,154.9	102,184.0	103,793.9	100,957.7	107,173.1 ³⁾	103,718.1 ³⁾	102,916.1 ³⁾
		2023 ³⁾	99,413.9	97,521.0	109,358.0	105,806.7	106,950.3	101,621.2	103,337.0	103,950.4				
차량 운송 화물	합계	2020	361,786.6	381,410.2	405,244.6	383,623.0	411,586.1	450,419.6	536,922.8	552,163.2	554,253.6	492,837.8	444,036.6	430,397.2
		2021	388,112.7	410,234.6	441,854.2	416,455.8	432,395.2	470,061.5	551,380.5	549,522.7	547,129.0	502,817.4	442,289.3	429,410.6
		2022	425,508.7	449,657.3	487,367.5	462,965.2	481,763.5	528,461.1	617,849.9	617,166.7	606,663.5	561,455.9	495,111.3	476,678.6
		2023 ³⁾	444,584.7	458,995.9	495,498.2	468,909.3	489,536.9	552,233.1	613,246.7	663,085.8				
	상업 화물	2020	104,918.1	115,948.7	124,410.1	108,181.7	112,363.0	114,857.0	129,398.4	131,967.0	132,466.6	125,180.8	121,222.0	122,663.2
		2021	124,579.2	137,967.4	149,940.3	131,410.6	132,074.9	134,330.7	149,645.7	148,438.9	147,798.3	145,013.0	136,464.7	138,361.6
		2022	157,949.2	173,897.7	192,860.9	170,951.0	173,399.2	177,743.7	195,745.7	193,392.5	190,722.6	185,539.0	176,162.5	180,431.2
		2023 ³⁾	195,115.9	215,471.9	212,538.7	197,134.3	193,637.0	194,156.9	198,792.1	199,488.2				

해상 운송	2020	1,871.2	1,657.9	1,638.8	1,633.9	2,327.2	1,582.5	1,949.0	2,158.3	2,625.6	2,508.8	2,584.1	2,152.8
	2021	1,467.0	1,216.8	1,851.1	2,178.1	2,218.6	1,565.2	2,115.4	2,217.4	3,042.9	1,638.4	1,745.8	2,182.9
	2022	1,581.4	2,031.3	1,662.5	1,857.4	2,549.8	2,209.1	3,043.2	3,073.0	1,922.1	2,366.0 ³⁾	2,567.0 ³⁾	2,692.0 ³⁾
	2023 ³⁾	2,730.3	2,213.8	2,794.5	2,782.7	3,105.5	3,050.6	2,762.0	2,880.4				
내륙수운 ¹⁾	2020	2,386.1	2,202.3	3,064.0	4,304.4	13,028.3	14,750.6	16,304.0	15,348.5	14,505.8	12,800.3	7,624.8	2,706.3
	2021	2,003.8	1,825.7	2,685.8	3,064.2	11,558.8	16,381.4	16,327.8	16,125.3	15,799.8	13,645.9	8,218.6	2,859.3
	2022	2,005.4	1,993.4	2,172.5	3,720.0	12,192.6	16,193.7	17,738.2	18,538.0	16,916.6	14,457.5 ³⁾	8,459.0 ³⁾	2,016.7 ³⁾
	2023 ³⁾	1,661.9	1,344.4	2,071.5	4,068.9	12,180.8	14,385.0	14,960.4	16,857.5				
항공 ²⁾	2020	80.7	69.9	101.5	80.8	89.5	90.9	92.0	95.3	104.0	113.9	126.9	129.1
	2021	100.3	100.5	120.8	120.2	121.3	118.4	122.3	122.8	128.1	133.7	140.0	148.5
	2022	115.3	97.8	33.8	30.1	31.6	34.9	38.1	43.1	42.4	43.1 ³⁾	45.0 ³⁾	51.1 ³⁾
	2023 ³⁾	31.9	34.2	37.6	35.8	35.5	36.0	40.0	42.3				

파이프라인 ⁴⁾	2020	101,088.9	95,177.0	96,440.0	88,926.4	78,023.6	73,815.7	78,171.7	81,667.1	82,713.8	88,193.5	93,117.3	104,102.0
	2021	105,018.7	95,967.4	100,879.2	91,355.4	92,043.7	88,822.9	88,785.4	89,502.3	90,446.6	95,553.7	96,726.4	106,250.8
	2022	104,298.4	92,025.3	102,953.5	86,600.0	86,532.6	82,351.9	81,088.8	80,869.4	78,253.4	85,383.5 ³⁾	90,951.5 ³⁾	10,1498.4 ³⁾
	2023 ³⁾	102,164.0	90,293.9	93,283.6	85,548.2	82,117.7	77,951.1	79,668.8	83,237.7				

1) 내륙수운~해상 연결 운송과 같은 선박을 활용한 복합운송 포함

2)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Federal Air Transport Agency) 자료 기반 수치

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주에 대한 통계 수치 제외

4)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원자료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총합계 수치만 공개함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10.12.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10.12. 검색))